

[목회실에서]

“Fighting Spirit”

김영훈 목사

저희 집은 저를 비롯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다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있습니다. 올해 High School 에 입학하기 전 여름부터 Football team 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체력훈련을 하더니, 얼마전부터는 다른 고등학교 팀들과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지역에서는 꽤 잘한다는 고등학교팀과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흥분하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곳이 있어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많이 아플텐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파서 끄끙거리면서도 눈은 빛났습니다. “아빠, 괜찮아. 너무 기뻐. 코치님도 울었고 나도 울었어!” 그리고는 경기중에 상대방 선수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그리고 같은 팀 선수들에게 큰 소리로 도전하며 격려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기쁘게 설명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부상이 염려되어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더 이상 말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ur family members are not tall including me. I don't want to say we are short, though. My youngest son is different. He is tall and strong. Before entering high school this year, he joined a foot team in the summer to practice and do physical training, and recently started to play with other high school teams. He had a game last night with a very good high school team in this area. Excited, he called me to tell his team won the game. When he returned home, he was in pain with bruises and wounds here and there. Feeling so sorry for him, I asked, “Are you alright?” His eyes were shining even moaning with pains. “I'm fine, dad. I'm so happy. My coach wept and so did I!” I don't know how happy he is when he detailed with excitement how he tackled his opponents during the match, and how he encouraged his teammates loudly. Actually, I thought of asking him to quit due to injury worries, but I found it is hard to do it anymore.

막내와 Football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중에는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fighting spirit)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경기 중에도 계속 함께 하는 선수들에게 목이 쉬도록 도전과 격려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learned a lesson from the conversation with my youngest son. First, fighting spirit is the most important in a match. Another one we shouldn't miss is: players should keep challenging and encouraging other teammates loudly even in the middle of a match.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외없이 여러 종류의 시험과 고난의 공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공격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영역을 더 넓혀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 공격들에 맞서다 보면, 때로는 마음과 삶에 여기저기 멍이 들기도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아프기도 합니다.

Without exception, we encounter various trials and attacks of hardship in our faith lives. Those attacks are intended to overthrow our spirits by expanding Satan's realm in our lives. Fighting against those attacks at times makes us get bruises here and there in our hearts and lives, face difficulties in life or get wounded or sick.

특히, 펜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편리함의 유혹들, 생활의 곤고함, 고독감과 우울, 정서적 피로감, 불안과 두려움, 오해와 다툼, 그리고 건강의 적신호들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 Football 경기에서 얻은 두가지의 교훈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약 4:7). 기드온은 싸울 준비를 했던 3 백명의 용사들만으로도 메뚜기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습니다 (삿 7 장). 두번째는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를 하는 일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며,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살전 5:11).

In particular, there seems to be more and more invisible attacks over the period of the pandemic. Those are spiritual fights we can't avoid. The temptations of convenience, the hardships of life, loneliness and depression, emotional fatigue, anxiety and fear, misunderstandings and quarrels, and red flags to our health are all the attacks to overthrow us. We could apply two lessons from a football game in our faith life. Most importantly,

you must have the will to fight against those attacks.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Gideon defeated so many Midian soldiers like grasshoppers with 300 warriors who were ready to fight (Judges 7). Second, challenging and encouraging one another is so important. I believe you could easily win if you have friends telling you words of faith and holding you steady.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just as in fact you are doing." (1 Thessalonians 5:11)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I earnestly hope everyone would win in a spiritual fight every day.